



2021년 1월 8일  
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  
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

##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(제 15 차) - 일본정부의 「긴급사태」의 재선언을 받고서 -

어제 (1월 7일), 일본정부는 두 번째 「긴급사태」를 선언 하였습니다. 사이타마교구로서는 기본적으로,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의 「감염증대응 가이드라인」 (2020년 11월 11일부)에 따라 신중히 대응 하여 왔습니다. 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「행정부에 의한 긴급사태선언이나 영업/이동의 자숙요청이 있을 경우, 신자들이 참가 하는 미사는 중지한다」라고 되어 있기에, 「긴급사태선언」의 대상이 된 사이타마 현 뿐 만이 아닌, 대상이 아닌 토치기, 군마, 이바라키 현도 포함하여, 아래와 같이 대응 하기로 하였습니다. 모든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은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하느님으로 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입니다. 긴 시간의 시련 안에서 기도하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,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

---

1월 8일부터 「긴급사태선언」이 해제 될 때 까지 (현시점에서는 2월 7일 까지), 공개미사 (주일, 평일미사)를 중지 합니다. 그리고, 주일미사 참례 의무도 교구내의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, 계속하여 면제 합니다. 또한 교회활동도 각 성당운영에 관한 최소 불가결한 회의를 제외하고 중지하여 주십시오.

이상